

한국 농악과 일본 사슴춤이 만난다

아시아 민속춤 축제 26일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서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고창농악전수관 야외 공연장에서 한국의 고창농악과 일본의 시시오도리(사슴춤)가 만나는 '아시아 민속춤 축제'가 펼쳐진다.

도쿄 시시오도리팀의 시시오도리 공연과 고창 농악보존회가 준비한 당산굿, 매굿 (마당굿-조왕굿-철통굿-샘굿-성주굿) 그리고 서로간의 문화 전승체계를 알아보는 대담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시시오도리는 일본 동북지방 이와테현 각지에서 전해지는 민속예술이다. 머리에 사슴털을 쓰고 등에 대나무로 만든 '사사라'라는 사슴뿔을 매고 북을 치면서 추는 춤으로 일본의 추석 개념인 오봉 (8월15일) 앞뒤에 시시오도리가 마을의 집집을 돌며 지난 한 해 돌아간신 분의 집 마당에서 춤을 올리는 것을 통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 주기도 한다.

이번 '아시아 민속춤 축제'에서는 오늘날 고창 농악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성불을 기원하는 뜻으로 '하카 오도리(묘지춤)'를,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우리들의 인연을 축복하는 '니와 오도리(마당춤)'를 선보인다.

이러한 시시오도리 연행 형태는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농악의 매굿과 유사한 형식으로 한·일간 문화 교류 공연에 핵심이 될 것이다.

도쿄 시시오도리 팀은 이와테현의 교잔류 마 이카와시시오도리 보존회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도쿄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도쿄 및 일본 각지와 해외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번 공연을 함께 준비한 고창농악 보존회 직능회원 가미노 치에(神尾知恵, 33, 일본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기관연구원)씨는 "지난 5.6년 동안 고창농악과 쌓아왔던 교류가 이렇게 하나의 공연으로 꽃피우게 된 것에 매우 보람을 느끼며, 단순한 문화형식의 교환이 아닌, 마음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창농악보존회 이명훈 회장은 "고창농악보존회의 폭넓은 인프라 구성과 프로그램으로 이번

아시아 민속춤 축제 같은 문화교류 공연이 성사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나라와 단체들의 교류를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고창농악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며 국제 문화교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재청의 생생 문화재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고창농악 생생樂(락) 콘서트'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 농악과 판소리가 어우러져 고창읍성에서 진행된 '고창농악 큰 잔치', 농악을 주제로 강연과 공연이 함께하는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한국의 고창농악과 일본의 시시오도리(사슴춤)가 만나는 '아시아 민속춤 축제'가 펼쳐진다. 사진은 일본의 시시오도리 춤.

한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고창 '문화가 있는 날'

고창문화의전당 · 판소리박물관 · 고창군립도서관 등서 다채롭게 열려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 하반기 행사를 고창문화의전당, 고창판소리박물관, 고창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고창판소리박물관, 고창고인돌박물관 등에서 다채롭게 연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창문화의전당에서는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이 연주와 관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요예술무대'를 복합인형극, 아프리카 타악, 포크송 콘서트,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진행한다.

24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인형극 '장 시즌? 복합인형극 물의 요정 방울이' 공연을 선보이고, 다음 달 28일에는 아프리카의 리듬과 열정을 연주하는 '아프리카 타악 야나 포', 9월 18일에는 싱어송라이터 포크송 가수

박강수 콘서트 '가을은 참 예쁘다', 10월 30일에는 미리 보는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뮤지컬 갈라 토크콘서트', 11월 27일에는 꿈꾸는 청춘, 젊은 성악가들의 열전 '초 겨울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 하반기 행사를 고창문화의전당, 고창판소리박물관, 고창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고창고인돌박물관 등에서 다채롭게 연다.

밤의 음악회' 등을 선보인다.

또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고창판소리박물관에서는 '맞춤형 판소리 체험공연'과 다양한 공예체험을 진행하고, 고창군립도서관·고창군립성호도서관은 생활공예교실과 대출 권수를 평소의 2배인 10권까지 확대 시행하는 대출서비스 '두 배로 Day', 고창고인돌박물관은 입장료 50% 할인행사 등을 실시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문화의 향기를 느끼는 여유로움을 선사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료 전시회 '일종의 자화상'

정읍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선보여
다양한 변주 · 확장된 의미의 자화상 40여점 전시

정읍시립미술관이 오는 27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기획전은 '일종의 자화상'으로, 오는 9월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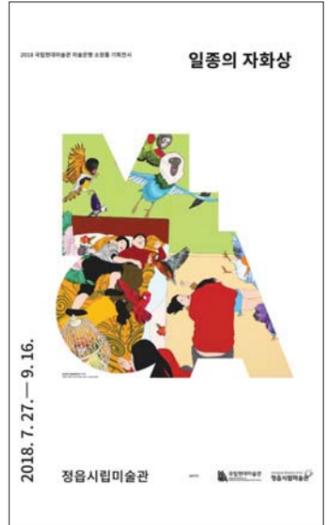
기획전에서는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사적인 의미의 자화상', 시대와 역사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 등 다양한 변주와 확장된 의미의 자화상 작품 총 40점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인 변용필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꽃', 최민화의 '하얀 기타', 조습의 '일식-수박, 동백, 산수유, 달빛,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타 지역 미술관과의 교류를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우리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소중한 기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 감상 기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삶을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을 위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1층 라운지와 뒷마당 상사바스에서 '00같은 내 얼굴'과 '내 얼굴 스케치'도 운영한다.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jongseup.go.kr/culture/index.jongse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미술은행은 매년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사립미술관 등의 협업을 통해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



를 통해 지역·계층 간 문화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기획전시는 정읍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강릉, 문경, 보성, 진주 등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사립미술관 등 5개 기관에서 열린다. '일종의 자화상'과 '변역된 건축' 등 두 가지 전시 테마 중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유산 보석도시, 익산 귀금속보석 장인展

익산보석박물관이 '세계유산 보석도시, 익산 귀금속보석 장인展'을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익산지역은 백제인의 훌륭한 세공기술을 계승, 1970년대부터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석의 도시 익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됐다.

이번 전시는 현재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금속보석 장인들을 중심으로 백제시대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장인들의 훌륭한 솜씨를 자랑하고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의 아름다움을 더불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보석박물관은 대한민국 보석명장 및 한국에

살문화 명인, 익산시 명장 등의 귀금속보석 작품뿐만 아니라 목욕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인들의 개성있는 작품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은 보석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백제시대로부터 이어져온 뛰어난 귀금속보석 가공기술력과 성실함으로 보석의 도시 익산이라는 수천억대의 브랜드 가치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세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는 도시라고 자랑하는 뜻깊은 전시이니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